IFES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IFES 브리프
RELATE TIMELY INFORMATION ON NEWS RELEVANT TO NORTH KOREA

NO.2021-20 2021.06.22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김 상 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uscksi2012@kyungnam.ac.kr

이전 발행자료

› [IFES BRIEF 2021-16]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동맹 주요 현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재욱교수

› [IFES BRIEF 2021-17]
원자력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병철교수

› [IFES BRIEF 2021-18]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상범교수

› [IFES BRIEF 2021-10]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평가와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03053)서울 종로구 북촌로 15길 2
TEL. (02)3700-0700
FAX. (02)3700-0707
http://ifes.kyungnam.ac.kr
E-Mail: ifes@kyungnam.ac.kr

Ⅰ. 개요

○ 북한은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한 해에 전원회의를 3번(상반기에만 3번)이상 개최한 것은 이번이 최초

※ 제6기 제23차(13.3.31), 제7기 제1차(16.5.9), 제2차(17.10.7), 제3차(18.4.20), 4차(19.4.10), 5차(19.12.28-31), 6차(20.8.29), 제8기 제1차(21.1.10), 제2차(21.2.8-11)

- 북한은 6월 4일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를 개최해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포치[1]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 실태를 중간 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6월 상순에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2]

- 김정은 총비서는 이례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6월 7일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고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 집행에서 제기되는 실태를 부문별로 집중 점검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3]

---

1) 포치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을 불려놓거나 널어놓다는 뜻으로 어떤 사업에 앞서 일정한 사람이나 집단 또는 단위들에 분공을 주고 사업의 목적과 이의, 하여야 할 일의 내용, 그 수행 방도 등을 알려주어 앞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짜고드는 것"이다.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7), p. 485.

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로동신문』, 2021년 6월 5일.

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로동신문』, 2021년 6월 8일.

- 김정은 총비서는 6월 1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 환경에 맞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논의[4)]

○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최초로 한 해 상반기에만 세 번의 전원회의를 개최, 이례적으로 전원회의 전 김정은 총비서 주재 하에 당 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 협의회 소집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원회의 성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한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확연히 당 중심의 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전원회의의 배경, 주요 내용, 목적과 의미를 분석·평가하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함.

Ⅱ.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배경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발전 및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성 확보 →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에 대한 정당성 강화·발전
- 북한은 6월 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에서 전원회의 개최 목적으로 “현 국면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제시
- 전원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8개라는 방대한 의제를 토의한 것은 당 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 대처와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직접 결정, 지시하는 작년 기조와 방식을 이어가며 당, 인민, 법·제도를 통해 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에서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5)]

○ 상반기 주요 정책 집행 과정 및 성과를 중간 총화하고 현실적인 성과 도출을 위한 하반기 정책 집행 계획 및 간부 검열
- 김정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에서 상반기 주요 정책 과업들의 부분별 집행 실태를 개괄, 분석 한 후,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사업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결정
-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의 정책적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를 소집한 기본 취지”임을 강조[6)]
- 전원회의에서는 일곱째 의정으로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상반년도 당조직 사상생활 정형을 채택하고 총화. 이는 곧 간부들의 사업실태를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검열해 사업에서 더욱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및 한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상황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 마련
- 북한은 6월 11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혁명의 대내외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다고 소개

---

4)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로동신문』, 2021년 6월 12일.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 회의 진행,” 『로동신문』, 2021년 6월 18일.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회,” 『로동신문』, 2021년 6월 16일.

- 전원회의에서도 '현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대한 문제'를 주요 의정 중의 하나로 제시[7)]

Ⅲ.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주요 내용(제2차 전원회의와 비교)

<표 1>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주요 내용 정리

날짜	의제	주요 내용
6월 15일 (1일 차)	① 주요 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 총화와 대책들에 대한 문제	▪<u>김정은 총비서가 상반기 주요 정책 과업들을 총화분석하고 5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부문별 과업과 방도 제시</u> ▪<u>당사업의 혁신과 강화를 위해 당사업을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과업들을 제시</u>
	② 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 데 대한 문제	▪<u>농사를 잘 짓는 것이 인민생활 안정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u> ▪재해성 기후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해 농업과 기상관측 부문의 협조체제 강화를 지시
	③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 데 대한 문제	▪비상방역의 장기화는 국가비상방역사업에서의 최대각성, 강한 규율 준수 비풍의 장기화인 동시에 경제전반 및 인민들의 의식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로 규정 ▪<u>인민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해주는 사업을 우선할 것을 특별히 강조</u>, 경공업·수산업을 비롯한 <u>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의 생산을 늘이기 위한 혁명적 대책을 제시</u>
6월 16일 (2일 차)	▪김정은 총비서의 상반기 사업총화분석에 입각하여 하반기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토의를 진행 -9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	
6월 17일 (3일 차)	▪국가정책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을 반영한 결정서, 알곡생산 계획의 무조건 완수에 대한 결정서를 전원일치로 채택	
	④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관한 문제	▪국제정치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되는 변화들과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에 대해 개괄, 평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을 상세히 분석, 향후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명시 ▪<u>국가존엄, 자주적인 발전이익, 평화적 환경과 국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 있어야 한다고 강조</u> ▪<u>김정은 총비서는 중요한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대외정책과 원칙들을 표명</u>, <u>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에 대해서 언급</u>하며 <u>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u>해 나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
	⑤ 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u>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인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애로 사항을 제때 해결해주는 것으로 규정</u> -여러 차례 협의회를 통해 <u>직접 료해한 인민생활실태 자료들</u>과 그 개선을 위한 <u>실천적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언급</u> ▪<u>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으로 규정하며,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친히 서명한 '특별명</u>

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회," 『로동신문』, 2021년 6월 16일.

		령서'를 발령
	⑥ 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한 문제	▪탁아소, 유치원 시기가 제일 중요한 연령기로 규정하고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 공급을 당의 정책으로 수립 지시, 구체적인 과업 및 방도를 제기**
6월 18일 (4일 차)	**⑦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생활정형 총화**	▪**당 중앙기관 성원들의 상반기 당생활정형에 대한 자료가 통보** -**지도기관 성원들은 당원과 인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자신들의 당생활 정형을 전면적으로 심각히 돌이켜 봄**. 김정은 총비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로되는 현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 ▪상반기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기초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되새기고 각성, 분발할 것을 강조
	⑧ 조직문제 토의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하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보선,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태형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후보위원 우상철(중앙검찰소장)을 임명[8]

※ 비고

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2019년 4월 10일 개최) 이후 현재까지 전원회의 배경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및 관련 구호를 제거한 채 당 마크만 게시

※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까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전원회의 배경에 전면 배치

②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는 당 회의나 현지지도의 경우 당일 로동신문 구호 변경이 지속

(기존)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외 3가지

(변경)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위대한 수반이신 김정은 동지 만세!

※ 이것은 2020년 4월 10일(보도기준)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 군단별 박격포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지도 때부터 나타난 변화

<표 2>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와 제3차 전원회의 비교

	제8기 제2차	제8기 제3차
개최 결정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
개최 시기	2월 8일-11일(4일 간)	6월 15일-18일(4일 간)
진행 방식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
주석단	김정은 총비서 및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위치	김정은 총비서, 정치국 상무위원들(1열) 및 당 정치국 위원들(2열)
참석 대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과 위원회·성·중앙기관·당·행정책임일군들, 도급 지도적 기관 책임일군들, 시·군당책임비서들, 중요공장, 기업소 당·행정책임일군들이 화상회의 체계로 방청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참가 -그외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중앙기관·무력기관 일군들, 도급 지도적기관과 시·군·연합기업소 책임일군들이 현장 방청
주요 의제	①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첫해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②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높이 벌릴데 대하여, ③당 중앙위	①주요 국가정책들의 상반년도 집행정형 총화와 대책들에 대한 문제, ②올해 농사에 힘을 총집중할 데 대한 문제, ③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 데 대한 문제, ④현 국

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공보," 『로동신문』, 2021년 6월 19일.

	원회 구호집을 수정함에 대하여, ④조선로동당규약해설 심의에 대하여, ⑤조직문제	제정세에 대한 분석과 우리 당의 대응 방향에 관한 문제, ⑤현 실정에서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⑥당의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한 문제, ⑦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조직사상 생활정형 총화, ⑧조직문제를 토의
대회 1일차	김정은 총비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첫해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한 보고 시작	①-③의제 토의
대회 2일차	①의제에 대한 김정은 총비서의 보고 지속	김정은 총비서의 상반기 사업총화분석에 입각하여 하반기 투쟁과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
대회 3일차	①의제 토론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할 과업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토의,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협의회 시작	④-⑥의제 토의
대회 4일차	②-⑤의제 토의	⑦-⑧의제 토의

Ⅲ. 특징 및 평가

○ 통치이데올로기(인민대중제일주의)의 안정성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강화 및 당 중심의 사회주의 보통국가로 가속화[9)]

-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의 기본 취지는 “올해의 정책적 과업들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데우려는 것”이며, 핵심사항은 “현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규정. 이것은 전원회의를 통해 상반기 사업 집행 과정 및 결과를 총화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 면모가 뚜렷이 부각되였다”[10)]

- 전원회의 의제는 인민생활 안정과 향상에 방점을 찍혀 있으므로, 기존 ‘인민에 의한 사회주의’에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로의 정책 기조 변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1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과 혁명앞에 지닌 성스러운 책임과 본분을 자각하고 백배로 분발분투하여 올해의 전투 목표들을 빛나게 완수하며 인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12)]

  ※“이번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얼마나 숭고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게 한 특기할 회의로 주체혁명사상에 뚜렷이 아로새겨졌다”[13)]

---

9) Jude Blanchette, “Ideological Security as National Securit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0), p. 1. 여기서는 김상범,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선과 정책의 제시,” 『IFES Brief_2021-18』, 2021.6.10, p. 5에서 재인용.

10)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핵심사항,” 『로동신문』, 2021년 6월 20일.

11) 김상범,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선과 정책의 제시,” 『IFES Brief_2021-18』, 2021.6.10, p. 5.

12) “사설-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찰하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

-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명령서에는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당의 육아정책을 위해 국가가 전국 어린이들에게 특별영양식을 제공하는 것과 2020년 수해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무위원장의 예비양곡을 어려운 인민들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판단
- 매우 이례적으로 육아정책을 당 회의의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료 상황 및 식량 정책 악화의 결과로 판단됨. 이는 인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문제이나 본질적으로 일생의 첫 정치조직인 소년단의 토대를 강화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확립해 장마당 세대와는 다른 김정은 '세대'육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
- 전원회의에서 당·정·군 간부들의 사상과 업적을 평가, 검열하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통해 관료주의, 부정부패, 간부들의 반·비사회주의 경향 등 김정은 총비서의 권력누수요인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14)]
- 다만,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한 뒤 로동신문 상에서 미래를 위한'도덕과 신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15)] 전원회의에서 간부들의 당 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인민들의 피로현상, 간부들의 인민 착취 현상 및 본위주의, 기관 이기주의, 반·비사회주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

○ 전원회의의 운영 방식 및 성격 변화를 통한 성과를 위한 실질적 '지도'의 강화
-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제2차 전원회의와 유사하게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 하에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각 부문별로 올해 수행 과업의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 및 협의체를 진행. 이는 전원회의 결정을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명확히 인식하고 무조건 관철시키는 기풍을 확립해 당과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려는 의도
  ※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제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시기 구태의연한 당 회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전원회의에서 제시되는 과업관철을 위해 집행 담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게 토의 채택", "전원회의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는 문제 해결의 출로를 찾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영도예술을 한층 세련시키고 귀중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힌 바 있음.[16)]
- 김정은 총비서는 전원회의를 통해 지도와 총화를 강화하고 당 규약 등 법·제도에 근거해 조치를 지시하며, 당정군의 고위관료들은 그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등 제도 준수와 인식의 전환을 통해 당과 지도자의 권능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이 체계화되고 있음.[17)]
  ※ 북한은 로동신문 상에서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최초로 열린 2012년 3월 전원회의(3월 31일 개최)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전원회의를 '지도'한 것으로 표기하고 있음. 전원회의 '참가, 선거'가 아니라 '지도'로 표기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는 다르게 전원회의의 운영방식 및 본질이 변화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당과 지도자의 권능 강화를 바탕으로 당을 정상화하면서 국가운영체계를 재확립하려는 의지가 강했음을 보여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로동신문』, 2013년 4월 1일.
- 김정은 총비서의 결론에 따라 모든 정책들이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며 당의 결정 지시가 당의 말단 단위까지 즉시 전달, 및 집행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평가

○ 국내외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따른 선택적 고립을 지속
- 김정은 위원장은 미중 경쟁의 고조라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G7 등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 움직임 속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 및 대응 방향을 명시한 것은 북한도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된 것으로 평가

---

13) "사설-전당, 전민이 견인불발의 투지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토의결정된 중대정책들을 철저히 관찰하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21일.
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창원: 경남대학교 출판부, 2020), p. 39.
15) "사회주의 신념은 찬란한 래일을 본다," 『로동신문』, 2021년 6월 7일; "사설-온 나라가 서로돕고 위해주는 우리의 국풍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 『로동신문』, 2021년 6월 14일.
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2일.
17)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반도 정세: 2020년 평가 및 2021년 전망』, p. 36.

- 대결을 위한 준비를 토대로 대화와 대결의 준비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침략적 성격과 한반도 군비경쟁으로 인한 위기 고조 가능성을 상수에 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자위력을 구축해 한반도 정세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 내치에 집중하는 것을 전제로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는 의제에 대해서는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의미이자 북미간 대화에 융통성 있게,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해석, 즉 필요에 의한 '선택적 고립'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 인민경제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법·제도적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 성과의 효율성과 간부들의 사상과 능력을 제고해 '실적'을 통해 당과 인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조치
-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의 상반기 당 조직사상생활 총화 실시는 북한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 이는 제2차 전원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당의 결정, 지시에 태만해 경제 집단 이기주의와 단위특수화 현상을 법·제도를 통해 감시·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
- 동시에 간부들의 '실력'과 '실천'에 대한 강조를 통해 무책임한 사업태도와 방식을 개혁하려는 최고지도자의 의지로 해석[18)]
-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을 정치국 후보위원에 임명한 것은 검찰을 비롯한 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기관과 간부들의 각종 위법행위들에 강력히 대응해 당 사업의 성과를 확보하려는 의지[19)]
- 개정된 당 규약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당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북한역사에서 이러한 규정은 없었던 일로 대리인의 정의가 명확치 않음. 당 제1비서가 사실상 넘버 2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30대의 김정은 총비서가 서둘러 넘버 2를 임명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 그러므로 제1비서직은 공석으로 장기간 남길 가능성도 존재[20)]
- 2021년 2월 27일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관련 기념공연에 참석한 이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일각에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박태성(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선전선동부장, 정치국 위원,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해당 직책, 직위에서 해임된 것으로 판단됨.
  ※ 박태성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이외 여섯 번째로 정치국 위원에 호명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던 인물

Ⅳ. 우리의 대응

○ 전원회의 운영방식 및 성격 변화로 인해 전원회의는 새로운 통치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결정의 절차적 과정이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여 정치국 회의 등의 집단적 협의 결정을 중시해야 할 것임.
- 최고지도자의 사고와 비전, 정책 방향과 실행을 종합적으로 이해해 리더십과 체제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 진로의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이 자신들 또한 대미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정책 방향성을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접촉 및 대화를 위한 북미, 남북 간 노력이 필요한 시점
- 북한 체제 존중을 전제로 한미는 북한이 말한 본질적인 문제(안보문제)와 북한의 애민정책 간 접점을 찾아 대화의 명분과 실리를 추구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김정은 리더십 강화와 체제 내구력 강화 과정, 성과가 북한의 대내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

---

18) "론설-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실천에서 나타나야 한다,"『로동신문』, 2021년 6월 17일.
1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3일 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21년 2월 11일.
20) 히라이 히사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펠로우), "조선로동당의 규약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내부 세미나 자료집, 2021년 6월 17일), p. 2

IFES 브리프 2021-20 2021년 6월 22일

발행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2 (03053)
전화: (02)3700-0700 팩스 | (02)3700-0707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 IFES브리프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수시 발간하는 e-출판물입니다.